

영광에 전국 최대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첫 발

3MW 중 1단계 1MW 준공식
주민주도 개발이익 공유 실현
농촌소득 증대·소멸위기 극복

영광에서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중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가 첫 결실을 맺었다.

전남도는 8일 “영광 염산면 월평마을에서 마을주민이 주도해 전국 최대인 3MW 규모로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의 1단계(1MW)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김영록 지사, 장세일 영광군수, 산업부 관계자, 도의원, 군의원, 학계, 발전사업자, 마을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월평마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는 전남도 주관으로 사업 부지를 공모·선정한 이후 약 3년 만에 영광군, 마을주민과 함께 거둔 성과물로 평가된다.

총 54억원을 들여 염해간척지 약 5만㎡ 면적에 3MW 규모로 조성되며, 이번 1단계 조성으로 본격적인 상업 운전

들어간다. 서영광 변전소가 신축되는 2026년 하반기엔 2단계 2MW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 전남에선 평균 60kW 규모의 22개 실증단계 영농형 태양광이 운영 중이다.

월평마을 영농형 태양광은 전국 최대 규모 상용화 모델로서 실증효과는 물론 지속 가능한 최적의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으로 주목받는다.

특히 주민이 농촌소득 증대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기로 하고, 자발적으로 조합을 만드는 등 주민 주도형 개발이익 공유 실현으로 눈길을 끈다. 월평마을 주민들은 2022년 10월 월평햇빛발전협동조합을 설립, 조합이 사업주체가 돼 발전수익을 토지소유자와 경작자, 마을주민 모두가 함께 햇빛연금을 공유한다. 월평마을 28가구가 가구당 매월 11만8,000원씩 연간 142만원을 지급받는다.

영농형 태양광 단지를 기반으로 월평마을은 향후 전국 지자체, 농민, 단체, 기관 등의 견학과 시찰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농촌 소득 불균형 해소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8일 영광 월평마을에서 열린 ‘주민주도 영농형 태양광 1단계(1MW) 발전단지 준공식’에서 주요 내빈들과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와 인구 유입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탄소중립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고,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영광 월평마을 태양광 조성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확대돼 지역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산업은 AI 첨단산업 투자 실현을 유리하게 해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 산업 육성을 견인하는 핵심”이라며 “앞으로 태양광과 해상풍력 산업 육성에 더욱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

조했다.

전남도는 앞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 23GW까지 확대하고 주민이

의 공유제를 제도화해 에너지 기본소득 1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본격 확대해 재생에너지100(RE100) 전력 공급능력을 높이고, AI데이터센터, RE100 산단 조성

과 첨단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 인구소멸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자체 마련해 ‘영농형 태양광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서 발의되도록 하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온 힘을 쏟고 있다. 정근산 기자

폐건전지 10개 가져오면 새 건전지 2개 교환

광주시, 12~23일 집중수거

광주시는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상반기 폐건전지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수거기간 동안 시민이 폐건전지

10개를 가져오면 새건전지 2개로 교환해준다. 교환장소는 광주시 자원순환과, 5개 자치구 청소행정과,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다.

폐건전지는 수은·납 등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생활쓰레기로 배출되면 토양

및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분리배출하면 유용한 금속자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해 환경보호 효과가 크다.

광주시는 폐건전지 교환사업을 통해 지난해 총 152톤의 폐건전지를 수거했다.

이는 2023년 수거량 131톤 대비 약 16% 증가한 수치다. 길용현 기자

“5월의 신록 만끽”…전남도, 명품 숲길 추천

장성 축령산 편백숲 등 4곳
울창한 나무·산책로 등 제격

전남도가 신록의 계절을 맞아 자연의 싱그러움과 치유의 시간을 만끽할 걷기 좋은 숲길 4곳을 5월 추천관광지로 선정했다.

4곳의 추천 숲길 중 담양 메타세쿼이아가로숲길은 1972년 조성돼 50년이 지난 현재 8.5km 길이의 도로 양쪽에 높이가 20m에 이르는 아름드리나무 2,000여 그루가 초록빛 동굴을 만든다. 5월에는 신록이 절정을 이룬 산책로를 따라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하고 도보여행자에게도 사진촬영 명소가 인기가 많다. 주변에는 작은 미술관과 카페, 자전거 대여소 등이 있다.

구례수목원은 ‘전남도 제1호 공립수목원’으로 다양한 봄꽃과 수목이 어우러진 진달래원, 봄향기원, 그늘정원 등 13개 정원과 온실, 종자학습관으로 조성됐다. 계절에 따라 피고 지는 꽃과 나무로 조성된 주제별 산책로를 걸으며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유아숲지도사와 함께 숲속 자연물을 활용한 개구리알 관찰하기, 나뭇잎 배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초·중·고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화순 무등산편백자연휴양림은 40년 생 편백나무와 삼나무가 울창하게 숲을 이루는 곳으로, 넓은 대지에서 뿜어내는 싱그러움 피톤치드를 마시며 일상의 피로를 날려보낼 수 있다. 통나무집, 쉼터, 매점, 물놀이터 등 가족모임과 학교, 회사 등 각종 단체의 연수, 세미나, 수련회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숙박예약은 산림청 통합예약사이트 숲나들e

에서 가능하다.

장성 치유의숲은 한국전쟁으로 황폐해진 축령산에 독립운동가 임종국 선생이 20여년간 가꾸 숲을 완성했다.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조림지로 손꼽힌다.

산책로 ‘치유의 숲길’은 경사가 완만해 쉽게 숲을 둘러볼 수 있다. 숲내음 숲길과 산소숲길, 건강 숲길 등 테마별 숲길에 6개 코스로 조성됐다. 또 산림청이 운영하는 국립장성숲체원에서 편백 팔찌만들기, 노르딕워킹, 숲속 요가 등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8일 “전남의 숲길은 울창한 나무와 꽃이 어우러져 걷기만 해도 눈과 마음이 힐링된다”며 “전남의 걷기 좋은 숲길에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면서 5월의 신록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저소득 청년 자립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세요”

도, 21일까지 읍면동 등 모집
월 10만원 3년저축 최대 4배

전남도는 8일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우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우 월 50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의 근로·사업 소

득이 있어야 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입자는 3년간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국·도·시군비로 월 30만원을 지원받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원금의 4배)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입자는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는 3년간 꾸준한 근로활동을 하면서 자산형성포털에서 10시간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만기 시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포털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오는 8월께 개별 통보한다. 자산형성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2022년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현재까지 전남 청년 3,038명이 가입, 올해 하반기 첫 만기 가입자가 나올 예정”이라며 “소득이 낮은 청년 근로자의 주거와 창업 지원을 위한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광주시 ‘반려동물 행동 교정교육’ 첫 시행

광주시는 8일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전문훈련사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반려동물 행동 교정 교육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반려동물의 과도한 짖음, 분리 불안, 공격성 등으로 인한 양육 스

트레스를 완화하고, 문제행동에 따른 유기동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도입했다.

교육은 광주 5개 자치구가 지역 여건에 맞춰 각각 추진하며, 시민 편의를 고려해 집합교육 또는 1대1 맞춤형 교육 방식으로 운영한다.

교육은 반려동물 전문훈련사가 직접

참여해 반려인의 올바른 양육법, 반려동물 사회화 방법, 문제행동 교정 등을 지도한다. 특히 1대1 교육은 반려동물의 성격과 생활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과 훈련으로 진행돼 실질적인 행동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광주시에 거주하며 반려동물 문제행동으로 상담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별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길용현 기자

인생을 울리는

후라면

SHIN RAMYUN

“라면은 역시 신라면이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라면이 있습니다. 인생을 울리는 농심 신라면
누구라도 좋아하는 맛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환영받는 맛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신라면의 맛, 오늘 맛있는 신라면 한 그릇 드셔 보세요. 맛을 보면 역시 신라면입니다.